

金正喜 詩에 나타난 清代 文人과의 交遊관계 고찰

田永實*

目次

1. 序論
2. 燕京에서의 交遊
3. 追崇의 노래
4. 그리움의 노래
5. 結論

1. 序論

朝鮮과 中國과의 교류는 清代 以前에는 주로 漢族에 의해 建國된 王朝와의 事大의 입장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만주족에 의해 세워진 淸과의 교류는 이전 조대와 비교하여 많이 줄었고 이후 丙子胡亂을 겪으면서 淸朝에 굴욕적인 事大를 강요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自意건 他意건 朝鮮은 다시 中國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同文彙考』補編의 卷 7의 使行錄에 의하면 仁祖 15년(1637) 4월부터 淸나라로 謝恩使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한다.¹⁾ 그 시작은 그해 1월 28일에 淸의 태종이 龍骨大를 시켜 仁祖에게 보낸 서신으로 하여 정식으로 국교를 회복하게 된다. 이후에 8년 동안은 당시의 淸나라 수도인 瀋陽으로 갔고, 이후 仁祖 23년(1645)부터는 옮겨진 수도인 燕京(지금의 북경)으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語科 講師. jyykin@hanmail.net.

1) 김일환, 「조선후기 중국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5), 292-294쪽.

로 갔다. 使行은 매년 한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冬至使는 년 1회 보내어졌다. 이외에 不定期的으로 謝恩使가 보내어졌고, 進賀使로도 갔었다.²⁾ 金正喜(1786~1856)는 북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楚亭 朴齊家(1750~1805)에게 가르침을 받아 북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清代 學術의 새롭고 實證的이며 科學的인 학문을 접하고자 渴求하다, 1809년 그의 나이 24세 때 생부 金魯敬(1766~1837)이 冬至兼謝恩使로 燕京으로 갈 때 자제군관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翁方綱·阮元을 만나 師弟의 연으로 학문적인 인연을 맺고 그들을 통하여 中國의 여러 학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家禍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는 불운하게 되지만, 이런 어려움에서도 학문과 예술에 대한 수양을 쌓아 경지를 이루었으며 白坡와 草衣 등 禪師들과 禪談을 통하여 불교에 심취, 禪學에도 깊은 조예를 가졌으며 제주와 북청의 유배생활을 마친 후 京畿道 栗川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71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이와 같은 평탄하지 못한 생애 속에서도 그의 뛰어난 才能과 博學多識함이 천하에 이름을 떨쳤으므로 그가 만든 秋史體란 서체는 金正喜식 서예를 가리키며 우리나라 서체 중 하나로 존재할 정도이다. 이외에도 周易에 조예가 깊었고, 또 金石, 圖書, 詩文, 篆隸등에 대해서도 출중하였다.³⁾ 특히 金正喜는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학문의 실용성에 뚜렷한 신념을 두고 무학대사의 碑로 잘못 알고 있었던 진흥왕순수비를 고증함으로써 자신의 實事求是적 태도를 실천한 바 있다. 그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학문에도 적용하여 비석을 여러 차례 답사하였고, 정밀하게 진흥왕순수비의 동류인 黃草嶺碑의 拓本과 北漢山碑를 對照하였으며, 『三國史記』등의 典籍을 인용하여 그것을 증명해 내었던 것이다.⁴⁾

본고에서는 金正喜가 부친을 따라 燕京에 가서 교류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 작품에 나타나는 그들과의 인간적이고 학문적인 면을 존경과 그리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秋史의 생애에서 20대 중반에 燕京(지금의 북경)

2) 金海宗, 「清代學術與阮堂」, (大同文化研究會, 1963), 74쪽.

3) 서경요, 「秋史金正喜」, 『한국인물유학사』, (서울: 한길사, 1978), 1720쪽.

4) 俞弘濬, 『阮堂評傳』I, (학고재, 2002), 126-130쪽.

에서 보낸 두 달은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⁵⁾ 그가 만났던 인물들은 翁方綱 부자와 阮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金正喜 한시를 가장 먼저 분류한 논문은 1969년에 思想과 主題별로 분류한 韓喆熙의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인 「阮堂 金正喜 藝術考」이다. 그 논문이 그 후의 분류에 많은 참고가 되어서 본 필자도 그것을 바탕으로 나누었다.⁶⁾ 다른 한편으로 詩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은 1983년 5월의 扈承喜의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 論文인 「秋史 金正喜의 文學研究-詩論과 詩를 중심으로」이다. 그 논문에서는 秋史의 시를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으로 나누었다.⁷⁾

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추사의 교유시 연구는 주로 그의 친구나 스승을 중심으로 국내 인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淸代 문인과의 교유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淸문인과의 교유는 주로 詩가 아닌 書信등의 작품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560여편이 되는 작품에서 中國의 역대 인물은 많이 등장하지만 同時代의 인물로 함께 교유했던 淸 문인들에 대한 시로 표현된 것은 불과 24편이다.⁸⁾

5) 추사가 연경에 갔을 때 연경학계는 고증학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갔고 종래 경학의 보조학문으로 존재하던 금석학, 사학, 문자학, 지리학 등이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금석학은 문자학과 서예사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큰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들게 된 추사는 귀국이후 특히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6) 韓喆熙, 「阮堂金正喜藝術考」,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69, 117쪽. 韓喆熙는 추사작품을 불교 34수, 유교 10수, 신선 11수, 실학 7수로 나누었다.

7) 호승희 논문에서는 秋史의 시를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작품,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삶의 구체적인 체험에서 오는 감정을 표현한 작품, 經典, 金石, 考證과 題畫詩등의 작품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8) 24편의 기준은 燕京에서 교유한 인물과 만나지 못하고 서신으로 교유한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작품에 여러 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합계한 숫자임을 밝힌다. 연경에서의 淸代 문인과의 교유 부분의 작품이 빠진 것은 그 부분의 본고의 서술이 작품의 분석보다는 역사적 기술을 우선으로 하여 생략했음을 밝힌다.

作品	主題
「題梁左田書 法時帆西涯詩卷後 左田是翁覃溪先生婿也 書法大有覃溪風致」	追崇의 노래
「走題金畫史千里 仿朱野雲荷鴨圖便面」	追崇의 노래
「次韻答吳蘭雪藁」	追崇의 노래
「走題李心菴梅花小幅詩後」	追崇의 노래
「題吳蘭雪 紀遊十六圖」	追崇의 노래
「題朱野雲畫」	追崇의 노래
「次寄吳蘭雪」	追崇의 노래
「題羅兩峯梅花幀」	追崇의 노래
「士說爲詩二十年忽欲學元人詩蓋其意元人多學唐故也余遂書辨詩一篇以明詩道之作」	追崇의 노래
「寄野雲居士」	追崇의 노래
「覃溪書藏之北篋 扁其齋曰寶覃 仍次覃溪寶蘇齋韻」	그리움의 노래
「仿懷人詩體 歷敘舊聞 轉寄和舶 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계 10수	그리움의 노래
「湊砌翠丈 與燕中諸名士 贈酬詩語談藪 而成好覺噴飯」	그리움의 노래
「朱野雲約於六月初三 瀝酒作余生朝 當此日 不禁黯然 率成一詩」	그리움의 노래
「題翁星原小影」	추송, 그리움의 노래
「我入京與諸公相 交未曾以詩訂契 臨歸不禁悵觸 漫筆口號」	추송, 그리움의 노래
「主題覃翁石鍾山記帖面」	추송, 그리움의 노래

다른 한편으로 본고에서는 秋史의 燕京에서 만나고 교류했던 인물을 작품을 중심으로 追崇하고 그리워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追崇하고 그리워하는 인물로는 翁方綱과 그의 아들 翁星原, 阮元 등이 중심이 되어 여러 문인들이 작품 속에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본고에 거론된 인물들은 모두 글과 畫에 특출한 인물인 관계로 秋史의 書畫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인용 원전은 『阮堂先生全集』으로 하였다. 그 문집의 구성은 전 10권

으로 되어 있다. 그 중 본고의 대상이 되는 교유시는 권 9와 권 10에 실려 있다. 권 9와 권 10에는 시 370편에 563수가 실려 있다. 이 시의 번역은 민족추진위원회에서 번역한 『國譯阮堂全集』과 鄭後洙가 번역한 『秋史 金正喜詩全集』을 참조하였다.

조선에서 秋史 이전 시기라 할 수 있는 18세기 문학의 특징은 朴趾源의 일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洪大容으로부터 일기 시작한 清代學術에 대한 학문적 열의는 朴趾源과 朴齊家 등에 이르러 큰 진전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朝鮮의 보수적 편협성과 문학적 후진성을 인식하며 선진문물의 수용을 지향하는 사상적 전환의 첨단에 섰던 것이다. 『熱河日記』나 『北學議』 등의 저술을 통하여 ‘利用厚生’의 실학을 추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온한 사상에 감염된 것으로 평가받는 공안, 경릉파의 문학을 탐독하기도 하였다. 正祖가 文體反正을 단행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亡國의 퇴폐적 문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 燕京에서의 교유

본 장에서는 燕京에서의 金正喜의 청조 문인들과의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⁹⁾ 秋史는 24세 되는 해인 순조9년(1809) 11월 9일에 生員試에 합격한다. 이 해에 호조참판이 된 생부 金魯敬이 冬至副使로 결정되자 秋史는 子弟軍官의 신분으로 燕京으로 떠나게 된다. 자제군관이라는 직책이 본래 공적 사명을 띤 것이 아니라 三使의 자제들이 그 父兄을 私적으로 시중들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도 공식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로워서 그들은 청대 문인들과의 교유와 문화 탐방 활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런 활동이 中國문물의 도입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北學도 바로 이 자제군관들

9) 본 장에서의 연경에서의 교유과정은 藤塚鄰著, 藤塚明編, 尹哲圭, 李忠九, 金奎璇 譯, 『清朝文化東傳의 研究』와 俞弘濬의 『阮堂評傳』 I 을 참고하였음.

에 의해 도입되었으니 洪大容이나 朴趾源이 모두 이 자계군관 출신이었다.

먼저 작품에서 秋史가 燕京에 도착하기 전 들른 遼陽에 있는 白塔을 거론하고 있다.¹⁰⁾ 삼천리나 되는 먼 길을 통해 도착한 中國, 그곳에서 바라본 朝鮮은 작기만 하다. 秋史는 작품에서 中國의 기이한 물상에 대한 많은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臚燕京使行」 제 1수

三千里遠道,	삼천리 머나먼 길을 왔지만,
尙可忘其勞.	오히려 그 수고를 잊을 만하네.
始識青邱小,	비로소 조선이 작다는 걸 알게되니,
無如白塔高.	백담같이 높은 것은 없네.
梅時開芍藥.	매화철에 작약이 꽃 피고,
雪臘賣蒲桃.	선달 눈 속에 포도를 팔러 다니네.
名士多於鯽,	명사가 붕어떼 보다 많으니,
誰傳魏子刀.	위자도를 누가 전해 줄 것인가.

물상의 풍부함이 매화철에 작약이 피고 겨울인 선달에 포도를 팔러 다님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 朝鮮의 사신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臚燕京使行」 제 2수

上价雖自重,	상사가 비록 자중하라 해도,
堂堂恣所之.	당당하게 다닐 때는 다닌다네.
正陽門外過,	정양문 밖을 지나도 보고,
夕照寺中期.	석조사 안에서 기약을 하네.
參訂筠廊筆,	참고하여 정정한 균랑 ¹¹⁾ 의 글에,

10) 백담은 높이는 70. 4미터이고 8각에 13층, 높이는 36장이고 둘레는 17-18칸으로 당나라 군대가 원정할 때 태종이 蔚遲敬德에게 명해 세웠다고 함. 김태준, 이승수, 김일환 공저, 『조선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 길을 가다』, (서울: 푸른역사, 2005), 272쪽.

傳訛粟谷詩.	그릇되게 전해진 율곡의 시 있네.
忽如尋舊夢,	갑자기 옛 꿈을 찾는 듯하니,
何處不相思.	어느 곳인들 서로 생각 않으리.

작품에서는 사신으로 자중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사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행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앞서의 언급처럼 자제 군관이 라는 신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中國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朝鮮의 문학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율곡의 시를 들어 표현하고 있다.

秋史의 명성은 그가 燕京에 도착할 즈음 이미 그의 스승 朴齊家를 비롯해 朝鮮사신으로 왔던 이들을 통해서 자자했다. 실제로 박제가의 그의 여행에서 자신의 제자인 추사의 글을 연경의 문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런 조선의 청년이 왔다는 사실에 曹江(1781~?)은 다음과 같이 연경의 학술계의 명사들에게 秋史를 소개했다.

“동쪽나라에 김정희 선생이란 분이 있으니 字는 秋史다.
나이 이제 24세인데 개연히 사방으로 지기를 찾아다닐 뜻이 있어서 일찍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개연히 한 생각 일으키니, 사해의 지기를 맺고 저.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만 하면, 위해서 한 번 죽기도 하련만.
하늘 끝 저쪽엔 명사도 많다니, 부러움 홀로 주체 못하네.”라고 했다 한다.
이로써 그 趣尙을 가히 알 수 있는데,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과거 보는 형식의 글을 짓지 않고 육신 밖에서 노닐며, 시도 잘 짓고 술도 잘 마신다고 한다. 지극히 中國을 그리워하여 동쪽 나라에서는 사귄 만한 선비가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사신을 따라 왔으니 장차 천하의 명사들과 사귀어 옛사람들이 情誼를 위해 죽던 의리를 본받으려 한다고 한다.”
(東國有金正喜先生字秋史, 年今二十四歲, 慨然有四方之志, 曾有詩云, 慨然起別想, 四海結知己, 如得契心人, 可以爲一死, 日下多名士, 豔羨不自己, 其趣尙

11) 筠廊은 허균을 가리킨다. 이부분에서 이율곡의 시가 허균의 시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可知也。與世寡諧，不作功令文字，放浪形骸之外，能詩能酒，酷慕中州，自以謂東國無可交之士，今方隨貢使入來，將交結天下名士，以效古人爲情死之以云)¹²⁾

한편, 秋史는 이미 스승인 朴齊家를 통해 燕京학예계의 동정을 소상히 들어 알고 있었다. 翁方綱(1733~1818)이 經學과 金石學 및 考證學과 書學에 박식해 燕京 학예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阮元(1764~1849) 역시 제반분야에서 방대한 업적을 쌓고 있어 翁方綱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秋史가 燕京에 도착했을 때 마침 浙江巡撫로 8년 동안 杭州에 내려가 있으면서 『經籍纂詁』나 『十三經注疏校勘記』 등 많은 저술을 내놓고 있던 阮元이 가을에 입경해 아직 귀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처가인 衍聖公邸에 있는 자신의 서재인 泰和雙碑之館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秋史는 우선 태화쌍비지관으로 阮元을 찾아간다.

이때가 阮元은 47세이고 이전 秋史와 비슷한 나이 때 朴齊家와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제자인 秋史를 반가이 맞이한다. 그리고 龍團 勝雪茶를 대접하면서 나눈 필담을 통해 추사의 학식의 수준에 감탄한다. 그러면서 阮元도 자신의 經學觀이나 藝術觀, 金石考證의 방법론 등을 말하게 되고 秋史는 그 해박한 지식에 감복하여 그 두 사람은 사제의 연을 맺게 된다. 阮元은 朝鮮의 천재제자를 위해 그가 소장하고 있는 『唐貞觀造像銅碑』와 『南宋尤延之本文選』 같은 진귀품과 泰山碑와 華山碑의 원탁본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저서인 『經籍纂詁』, 『擘經室文集』, 『十三經注疏校勘記』 등을 기증한다.¹³⁾ 이런 阮元의 도움이 이후 추사의 학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翁方綱의 제자인 李林松의 서재나 朝鮮 사신들이 묵고 있는 法源寺에서 翁方綱의 주변의 인사들과 만나 사귀게 되니 李鼎元, 曹江, 徐松, 金勇, 朱鶴年(1760~1834), 洪占鎔(1762~1834), 譚光祥, 劉華東과 같은 인물들이 그들

12) 藤塚鄰著, 藤塚明編, 尹哲圭, 李忠九, 金奎璇 譯,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果川文化院, 2009), 144쪽. 재인용

13) 藤塚鄰著, 藤塚明編, 尹哲圭, 李忠九, 金奎璇 譯,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果川文化院, 2009), 194-196쪽.

이다. 이들과 친교를 트면서 翁方綱을 만날 기회를 잡게 된다. 이 때 翁方綱은 이미 78세의 고령으로 燕京학계를 대표하는 대가였으므로 함부로 외부인사를 만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의 칭송과 이전에 만났던 朴齊家와의 인연으로 해서 秋史의 면담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제자 이임송을 통해 1월 29일 묘시(새벽 5~7시)에 만나자고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받은 秋史는 새벽에 翁方綱의 저택을 찾아갔고 翁方綱은 그를 서재인 石墨書樓¹⁴⁾에서 맞이했다. 그 석묵서루에서 78세의 燕京학예계의 태두인 翁方綱과 이제 겨우 25세인 朝鮮의 청년학자 秋史가 만나게 된다. 翁方綱이 새벽에 만나고자 한 의도는 처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변 칭송에 대한 호기심과 박제가에 대한 예우로서 형식적인 면담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상치 않은 기상에 이끌리게 되고 筆談을 통한 질의응답에서 높은 학예수준을 간파하고 천재성과 기백이 넘치는 학구열에 翁方綱은 감탄하게 된다. 그래서 해동에도 이런 영재가 있었던가 라고 감탄하며 ‘經術文章 海東第一’이라고 하면서 사제의 연을 맺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누구에게도 잘 보여주지 않던 金石 및 書畫의 진적들¹⁵⁾을 꺼내 보이며 금석고증과 서화 감식 및 서법원류에 관해서 자신이 의견을 소상히 말하게 된다. 또한 두 아들인 樹培(1764~1811)와 樹崑(1786~1815)를 불러 소개하여 교류하게 한다. 翁方綱은 귀국을 앞두고서 찾아간 秋史에게 석별을 아쉬워하며 秋史의 요청대로 그 부친의 별호인 「酉堂」과 秋史의 당호인 「寶覃齋」의 편액을 써 주어 사제의 정을 표시했다.

14) 금석서화 8만권이 수장되어 있었으니 『履園叢話·耆舊』에 의하면 燕京학자들은 그의 소장도서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도서 문적이 구슬같이 깨끗 있으니 그 방에 올라가면 마치 만가지 꽃으로 가득찬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눈이 어쩔거려 담론할 겨를도 없게 한다. (圖書文籍插架琳琅 登其堂者 如入萬花谷中 令人心搖目眩 而無暇譚論者也)」, 藤塚鄰著, 藤塚明編, 尹哲圭, 李忠九, 金奎璇 譯,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果川文化院, 2009), 151쪽.

15) 「漢畫武梁祠石像拓本」, 「宋拓華岳廟碑」, 「宋拓夏承碑」, 「唐刻本孔子廟堂碑」, 「宋拓化度寺高僧邕禪師舍利塔銘」, 「宋拓九成宮醴泉銘」, 「宋榻大觀帖」, 「唐臨晉帖」, 「東坡書天際烏雲帖」, 「宋槧注東坡先生詩殘本」, 「唐寅畫」, 「蘇東坡像」, 藤塚鄰著, 藤塚明編, 尹哲圭, 李忠九, 金奎璇 譯,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果川文化院, 2009), 149-179쪽.

1810년 2월 1일에 阮元, 李鼎元, 金勇, 朱鶴年, 洪占銓, 譚光祥, 劉華東, 李林松 등은 법원사에 모여서 秋史를 전별하는 전별연을 베푼다. 이에 秋史는 朱鶴年에게 전별연의 장면을 그려서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동석한 스승 阮元을 비롯한 명사들에게 전별시를 부탁한다. 이에 朱鶴年은 「餞別宴圖」를 그리고 이임송은 참석자들을 대신해 전별시 7수를 써서 한 책을 만들고 유희동이 「餞別冊」이라 표지에 써서 기증한다.

연경에서 25세밖에 안된 朝鮮의 청년학자가 당시 청나라 학예계를 주도하던 대학자들과 면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거리인데 하물며 학예계의 양대 거장인 翁方綱과 阮元으로부터 그 식견과 자질을 인정받아 사제의 의를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秋史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젊은 청년학자를 전별하기 위해서 스승 阮元을 비롯해 朱鶴年 등 40, 50대의 청조 학예계 중진들이 모여 秋史를 주빈으로 하는 전별연을 베풀었다는 점에서도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餞別宴圖」를 그린 朱鶴年은 이미 51세로 秋史에게는 부친의 나이와 비슷하지만 전별의 자리에서 서로 생일날 술을 뿌려 友誼를 잊지 말자고 약속까지 했으니 秋史가 저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秋史가 燕京에 가서 얻은 것은 청대의 학예계의 인정을 받은 것 뿐 만 아니라, 이제까지 비록 北學적 분위기 속에 자라면서 스승 朴齊家에게 강렬한 영향을 받아 그 자신이 북학자라고 할 만큼 북학에 심취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피상적인 외래문화를 인식하는데 불과했다는 반성이었다. 조선의 문인들은 그 당시 주자의 성리학을 朝鮮성리학으로 토착화시키고 그를 사상적 바탕으로 삼아 朝鮮고유문화를 이룩했다는 자만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만주족에 의해 건국된 청나라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다. 그런데 추사가 이제 청조문물을 目睹하고 청대 학예계의 중추들과 만나서 학문과 예술을 논해보니 그들의 큰 안목과 學識에 자신만만했던 이제까지의 문화적 자존심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추사가 연경에서 얻게 된 큰 소득인 것이다. 그러나 추사가 그런 상황에서도 압도되지 않았음을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를 대하는 청조의 文士들이 나이를 떠나서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태

도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는 秋史가 그동안 명문가에서 나고 전통적인 朝鮮 고유의 정규교육을 받고 다시 朴齊家와 같은 유능한 스승을 만나 복학의 정수를 전수받아 新舊의 지식을 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燕京에서 맺은 翁, 阮과의 사제관계는 귀국이후에도 이어져서 의문점을 書信으로 묻기도 하고 보아야 할 책의 구입을 부탁하고 사귀어야 할 사람을 소개받으면서 학예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받는다. 비록 秋史의 몸은 조선에 있었지만, 그의 눈과 귀는 항상 燕京에 닿아 있었던 것이다. 물론 秋史가 두 스승에게 기울인 정성도 극진했다.¹⁶⁾

추사가 연경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의 명성은 자자했다. 이는 스승인 박제가가 추사의 서체나 글을 소개하고 여러 인사들에 대한 評에 의해서였다. 그러면서 추사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 갔고 그런 청조의 문사들의 기대에 추사는 완벽하게 부응하여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되었다. 연경에서의 두 달은 추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학문이 우물 안 개구리임을 알게 되고 더욱 더 분발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후 연경에서 맺은 인연은 그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고증학과 금석학에서 서신을 통한 질의와 응답은 연경의 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선진학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사신으로 가는 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후인들의 교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3. 追崇의 노래

추사는 작품을 통하여 연경에서 만났던 인물들을 追崇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追崇의 대상으로 人品은 물론 글씨와 그림에 능통한 자를 작품을 통하

16) 실제로 추사는 편이 닿는 대로 인삼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금의 금석자료 및 서적의 기증이 있었고 스승의 생신이 되면 하루 종일 향을 피우고 축수를 기원할 정도였다. 특히 翁方綱에게는 더욱 극진하여 79세 되는 해에는 80수를 미리 경축하는 「無量壽經」을 손수 쓰고 「南極壽星」이라는 편액 1축을 써 두었다가 이를 동지사편에 보내기도 했다.

여 숭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人品적인 면에서는 秋史의 작품 속에서 주로 翁方綱이 표현되어 있지만 阮元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題梁左田鉞書 法時帆西涯詩卷後 左田是翁覃溪先生壻也 書法大有覃溪風致」

左田西涯卷, 優入覃溪室. 爲其甥館故, 頗能學法律. 濃麗則具足, 但少蒼而濶. 覃翁眞天人, 坡公生今日. 平生所爲事, 一與坡公匹. 運會反復過, 瘦銅辭匪溢. 以至相貌未, 蓋瘦衣頰闊.	서애의 시권에 쓴 좌전의 글씨, 훌륭히 담계실에 들어있네. 그 사위가 되는 까닭에, 아주 잘 법·율을 배울 수 있었네. 농후하고 고운 것을 다 갖추었지만, 창고와 변화는 좀 적네. 담옹은 진실로 하늘이 낸 분이고, 蘇東坡가 오늘에 다시 태어나셨네. 한평생에 하신 일들이, 하나같이 동파와 같으시네. 운회가 반복해서 지나가니, 장수동의 말이 어찌 넘친다 하리. 심지어는 모양마저 거의 같아서, 혹을 덮는 옷조차 깃이 넓네.
--	--

위의 작품에서는 사위인 좌전¹⁷⁾의 글을 통하여 스승인 翁方綱¹⁸⁾의 뛰어난 것을 비유하고 있다. 먼저 서애의 시권에 쓰여진 좌전의 글씨가 뛰어나서 담계실에 들어갈 만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런 훌륭함은 장인인 翁方綱으로부터 배운 것이니 더욱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작품에서 秋史는 자신의

17) 양월은 翁方綱의 사위로서 서법이 유명하였음. 時帆은 청 나라 法式善의 호인데 原名은 運昌이고 자는 開文이며, 또는 西涯라고도 하였음. 그의 梧門書屋에는 법서와 명화를 많이 소장하였으며 詩壇의 雄鎮이요 당대의 명가였음. 양월이 시범을 위하여 그 시권을 손수 쓴 것임.

18) 覃溪는 옹방강의 號. 옹방강은 청대 大興인으로 字는 正三이다. 建隆 때 진사로 벼슬은 內閣學士에 이르렀으며, 금석·譜錄·서화·詞章에다 정통하고, 서법은 더욱 출중하여 청조 사대가의 한 명이였다. 저술로는 『兩漢金石記』·『精義考補』·『復初齋全集』이 있음.

스승인 翁方綱에 대해 하늘이 내려주신 분으로 蘇東坡와 같은 존재로 칭송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김새도 닮아서 왼쪽 목에 있는 혹을 예로 들고 있다.

「主題覃翁石鍾山記帖面」

重拈七百五年苔,	칠백 오 년의 이끼를 뽑아내어,
得自蘭亭篆勢來.	난정기체를 채득하여 왔네.
誰識淋漓元氣處,	누가 원기가 힘찬 곳을 알겠는가,
千山明月篆煙廻.	천산의 밝은 달빛 전연이 감도네.

작품 속에 표현된 칠백 오년은 翁方綱이 「石鍾山記」를 왕희지의 蘭亭記 필체로 쓴 것을 나타내면서 스승의 서체를 칭송하고 있다. 서체는 특히 추사의 이후 서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蘇東坡가 죽은 후로 칠백 오년이 지났고, 그동안 蘇東坡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가 옹방강에 이르러 나오게 되니 그의 서체가 힘차서 원기가 뻗쳐서 모든 산에 밝은 빛을 비출 정도임을 표현하였다. 이는 蘇東坡를 계승할 자는 옹방강 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秋史는 자주 옹방강을 蘇東坡와 비유하면서 追崇의 정도가 깊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阮元에 대한 追崇을 보자.

「仿懷人詩體 歷敍舊聞 轉寄和舶 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제 7수

七經與孟子,	칠경과 맹자같은,
考文析縷細.	고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네. ¹⁹⁾
昔見阮夫子,	옛날에 완 부자를 만나뵈오니,
嘖嘖歎精詣.	입 닦도록 정예를 감탄하셨네.
隨月樓中本,	수월이라 독서루에 소장된 본을,
翻雕行之世.	번각하여 세상에 통행했다오.

작품은 『七經』과 『孟子』의 고문이 세밀하다고 감탄하는 阮元을 만나게 되고

19) 考文은 「揚州 隨月讀書樓」本으로써 板刻하여 통행한 것임.

이를 번역해 내는 阮元의 학문 수준에 대한 칭송을 보여준다. 그런 阮元의 학문적인 식견에 감탄한 秋史는 자신의 號를 阮元의 阮자를 본 따서 阮堂이라 하였다. 추사는 특히 앞서의 언급처럼 阮元의 경학관에 많은 관심과 감탄을 보여주고 있음을 저서로서 『七經』이나 『孟子』를 번역한 것을 말함에서 알 수 있다.

추사는 스승인 옹방강이 아들인 翁樹崑은 그의 작품에서 옹방강 다음으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추사는 그의 서법에 대한 칭송과 개인적인 친분의 정도를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題翁星原小影」

端莊雜流麗,
剛健含婀娜.
坡公論書句,
以之評君可.

.....

覃室儼侍歡,
蘇筵執役同.
文字聚精靈,
神理合圓通.
愧我慙雌甲,
生辰又特別.
以君家墨緣,
宜君生臘雪.²⁰⁾
如何我生日,
而復在六月.
依然蘇與黃,
君我各分一.

.....

단정하고 씩씩함에 유려함이 섞여있고,
굳세고 건장한 데 곱고 연함 머금었네.
동파의 서법 논한 글귀를 들어다가,
그걸로써 그대를 평하는 게 옳겠네.

담실을 바로 모셔 기쁘게 받들고,
소연에도 역할을 같게 하셨네.
문자는 정과 영이 모여졌다면,
신리 또한 원만하게 통이 어울렸구려.
못난 나는 자갑이 부끄러운데,
낳은 때조차 또 특별하다오.
그대의 집 묵연으로 헤아리면은,
그대는 선달생이 마땅하거니.
하필이면 내 생일이,
또 다시 유월달인가.
蘇東坡와 황산곡이 아득하게도,
그대와 내가 하나씩 각기 나누었네.

20) 雌甲은 짝수 달을 말하는 것으로 추사의 생일이 6월이고 성원은 12월임을 말한다. 또한 臘雪은 선달 즉, 12월을 말하며 蘇東坡의 생일이 선달이어서 성원의 생일 달인 12월과 같음을 표현하고 6월은 황산곡의 생일로 추사와 같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추사는 성원과의 인연이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星原은 翁樹崑(1786~1816)의 字로 翁方綱의 아들로써 秋史와 知交한 관계로 그의 서재를 星秋霞碧之齋²¹⁾라 하였고 秋史를 위하여 紅豆山莊에 大字의 편액을 친히 써서 기증하였다. 秋史는 翁수근이 동파의 글을 “端莊雜流麗, 剛健含婀娜(단정하고 장엄함에 아름다움이 나타나 섞이고, 굳세고 건장한 데 곱고 연함을 머금었다)”라고 논한 것이 秋史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원의 글이 동파의 글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성원의 문장은 신령스러우며 신리가 통하고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남다른 그 둘의 관계는 蘇東坡와 黃山谷의 관계처럼 자신들도 그러함을 표현하고 있다. 즉, 成원은 생일이 설달이어서 동파와 月이 같고 秋史 자신은 6월 3일로 黃庭堅과 같으니 서로 인연이 깊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蘇東坡와 黃庭堅을 追崇하는 것은 스승인 翁方綱과 앞서의 두 위인이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秋史가 가지고 있던 翁方綱에 대한 追崇의 표현이고, 진실 된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翁씨 부자와 秋史가 東坡에 의해 서로 인연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른 작품에서처럼 본 작품에서도 蘇東坡의 시를 들고 있다.²²⁾ 成원의 필체에 대한 칭송은 다음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歸畫於紫霞 仍題」

.....

星原筆鎔鐵,	성원이라 필치는 쇠를 녹이니,
似若壽無量.	한없이 수를 누릴 것만 같았네.
如何須臾間,	어찌하여 얼마 아닌 잠깐 사이에,
曇花儻現亡.	담화가 나타났다 곧 사라졌지.

21) 成원의 서재의 이름인 星秋霞碧之齋에서 星은 星原, 秋는 秋史, 霞는 申紫霞, 碧은 柳貞碧을 말함. 成원은 이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22) ‘烏雲萬里夢’의 구절에서 烏雲은 송 나라 蔡襄이 꿈속에서 “天際烏雲含雨重 樓前紅日照山明 崇陽居士今何在 青眼看人萬里情”이라고 지은 시를 소식이 썼는데 그 진본을 翁方綱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탁본하여 秋史에게 보냈음. ‘舉似匡廬僑’의 광려산은 中國의 廬山을 말하는데 소식의 「題西林壁詩」에 “不識廬山真面目 只緣身在此山中”이라고 한 것을 말하는데, 산의 참모습을 쉽게 알 수 없음을 뜻함.

萬里遂千古,	만리 길이 마침내 천고로 되니,
撫書涕忽泣.	그림을 어루 만지며 문득 눈물을 흐르네.
匪傷星原死,	성원의 죽음만이 슬플 뿐이라,
吾輩墨緣淺.	우리들의 묵연이 얕아서이지.

성원의 필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의 죽음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다. 성원의 필체는 쇠를 녹일 정도로 힘이 차서 한없이 수를 누릴 것 같은데 曇花²³⁾처럼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니 슬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슬픔보다는 오히려 墨緣이 짧아진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추사는 書法의 훌륭함으로 曹江²⁴⁾을 말하고 있다. 사실 秋史의 작품에서는 조강에 대한 언급이 적다. 秋史는 「湊砌翠丈與燕中諸名士贈酬詩語談藪而成好覺噴飯」의 마지막 구절에서 조강의 글귀에 대해 “雄襟披拂四筵驚(웅장한 포부를 펼쳐내자 사면에서 놀라누나)”라고 하면서 이것이 曹玉水(曹江)의 글귀임을 주석을 달고 있다. 즉, 조강의 글귀는 웅성원처럼 웅장하다는 점을 표현하였다. 이 구절이외에도 조강에 대한 다른 칭송의 구절을 보자.

名家子弟曹玉水,	이름난 집 자제로 조옥수를 쳐다보면,
秋水爲神玉爲髓.	가을 물은 정신되고 옥은 뼈가 되었다오.
覃門高足劇清真,	담계 문하 고제로서 더함 없는 청진이라,
落筆長歌句有神.	시도 짓고 노래도 하는 하는데 글귀마다 신불 었네.

曹玉水是 명문자제로 가을의 물과 같은 맑은 정신과 구슬과 같은 몸이라면 담계의 문하에서 으뜸임을 표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강은 필체이외에

23) 梵語의 優曇發花라는 꽃 이름인데 3천 년 만에 한 번 꽃이 핀다고 함. 耘虛龍夏著, 『佛敎辭典』, (서울: 東國譯經院, 1987), 642쪽.

24) 曹江은 자는 玉水, 호는 石谿. 상해인으로 건륭시기에 진사가 되어 陝西道御使를 지냈다. 건륭말기에 대 학사 和珅을 탄핵 주청한 일로 관직 박탈 후 유배되어 죽게 되었다. 특히 그의 명성이 조선에 까지 전해졌다. 일찍이 1801년 박제가와 유득공이 여행했을 때 깊은 교유를 맺음.

도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여 글귀마다 살아있는 神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秋史는 그림의 분야에서 追崇한 인물로 朱鶴年과 오난설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다. 먼저 朱鶴年을 보자.

「走題金畫史千里 仿朱野雲荷鴨圖便面」

野雲原筆頗瀟爽,	朱野雲의 본 그림이 자못 시원하게 나타나,
花葉相當鼻則兩.	꽃과 잎이 마주 보고 오리도 두 마리네.
千里巧思刪汰之,	김천리는 거기서 또 절반을 빼버리고,
鼻一葉一還也奇.	오리 하나 잎 하나라 도리어 신기하네.
雖是無花但有葉,	이게 비록 꽃은 없고 잎만이 붙었지만,
更覺無花格還別.	다시금 생각하니 꽃 없는 게 더욱 고상하네.
書龕八萬四千偈,	화감의 팔만사천 게어를 벌여놓고,
卽薪卽火拈眞諦.	신화에 나아가서 진체 ²⁵⁾ 를 찾았구려.

朱鶴年²⁶⁾의 그림을 檀園 金弘道의 아들인 千里 金良驥와 비교하여 그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鶴年의 그림은 시원하여 꽃과 잎이 서로 잘 어울리는 두 마리 오리인데 이것을 千里에 의해 반쪽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더욱더 격조가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題朱野雲畫」

十載胸中邱壑情,	십 년을 가슴속에 두었던 산과 물의 정,
野雲墨妙自天成.	야운의 그림 솜씨는 하늘이 준 것이네.
一琴一鶴還多事,	하나의 거문고, 한 마리 학 ²⁷⁾ 이 도리어 많은 일이 되니,

25) 眞諦는 불가의 용어로 眞實無妄 또는 出世間法이라 한다. 耘虛龍夏著, 『佛敎辭典』, (서울: 東國譯經院, 1987), 834쪽.

26) 野雲은 朱鶴年의 호임. 太州 사람인데 산수화를 잘하여 의취가 閑遠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풍이 있었다. 人物·士女·花卉·竹石에 능하였음.

27) 宋나라 趙卞의 故事인데, 蜀州刺使로 부임하면서 가지고 가는 물건은 거문고 하나 학 한 마리뿐이었다고 함. 『宋史 趙卞傳』

五馬惟須載畫行. 다섯 말에는 오직 그림만 싣고 떠나가네.

野雲의 그림의 우수함이 본래 하늘에서 받아 이루어 진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아울러 그 고귀함은 거문고와 학보다 더하여 지방의 부임길에 가는 다섯 말에 그림만 싣고 가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秋史는 朱鶴年の 그림은 그 속에 詩의 情이 표현되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寄野雲居士」

古木寒鴉 ²⁸⁾ 客到時,	고목나무 갈가마귀 나그네 당도할 때 우니,
詩情借與畫情移.	시정을 빌리어다 그림의 정취에 옮겨 놓았네.
煙雲供養知無盡,	연기와 구름은 공양의 다함이 없음을 아니,
笏外秋光滿硯池.	홀 밖의 가을 빛갈 베투 못에 가득하리.

작품에서 ‘詩情’은 시를 읊는 것을 말하고 ‘畫情’은 그림 그리는 것을 말하는 데 朱鶴年の 그림은 ‘詩情’을 빌려다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즉, 시에 표현하려는 情이 그림으로 옮겨갈 정도로 그림이 훌륭함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 추사는 그림을 보면 시가 떠오르는 인사로 李心菴을 거론하였다.

「走題李心菴²⁹⁾梅花小幅詩後」

看花要須作畫看,	꽃 보려면 그림으로 그려서 보아야 해,
畫可能久花易殘.	그림은 오래가도 꽃은 쉽게 시드네.

28) 朱鶴年이 “갈가마귀 떠났어라 고목만 우뚝하고 나그네 당도하자 석양이 아스랑네. 「古木崢嶸鴉去後 夕陽迢遶客來初」”라는 古詩의 詩情을 취하여 그린 그림을 두고 한 말이다.

29) 李心菴은 李林松을 말한다. 清代 上海사람으로 字는 仲熙, 號는 易園이다. 벼슬은 戶部 員外郎을 하였고 經術을 깊이 연구하고 漢學에 정밀하였다. 1810년 1월 29일 秋史가 옹방강을 만나는 자리를 안내하였음. 저서로는 『周易術補』, 『通韻便覽』 등이 있다. 方賓觀等編纂, 『中國人名大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6), 400쪽.

況復梅花質輕薄,	더구나 매화는 본바탕이 경박하여,
和風並雪飄闌珊.	바람과 눈이 날리면 이리저리 휘날리네.
此畫可壽五百歲,	이 그림은 오백 년이 갈 만하니,
看到此梅應復仙.	이 매화 보노라면 응당 다시 신선되리.
君不見詩中香是畫中香,	그대는 못 보았나 시 속의 향이 바로 그림 속
	의 향일진대,
休道畫花畫香難.	꽃 그려도 향 그리기 어렵다 말을 마소.

李心菴의 「梅花小幅詩」를 본 후의 감상을 노래하고 있다. 꽃을 보려면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그것은 그림은 오래가도 꽃처럼 쉽게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그림은 수명이 오백세나 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신선이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에 대한 秋史 자신의 생각에 그림이 대비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심암의 그림에 대한 찬사로 꽃을 그려도 향을 그리기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보여준다. 이것은 이심암의 그림은 꽃을 그리면 향이 난다고 칭송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秋史가 칭송한 소식이 唐代의 시인인 王維의 작품을 “詩中有畫”³⁰⁾라고 표현함과 같음을 느끼게 한다.

이외에 秋史는 작품에서 그림의 追崇의 대상으로 吳蘭雪³¹⁾을 거론하였다. 특별히 매화그림을 잘 그렸던 오난설에 대한 追崇의 노래가 있다.

「次寄吳蘭雪」

紅衫懷舊雨,	붉은 옷은 옛 친구가 생각나는데,
白髮愧雌辰.	백발은 자신이 부끄럽구려.
雙屐匡廬偈,	쌍나막신 광려의 게노래 은은했고,
千壺淨業春.	정업호에서 거나하게 취하니 봄날이로세.
金門梅大隱,	금문의 매화 잘 그리는 이,

30) 蘇軾 『東坡題跋』卷五 「書摩詰藍田烟雨圖」：“味摩詰之詩，詩中有畫；觀摩詰之畫，畫中有詩。”

31) 吳蘭雪은 東鄉人인데, 이름은 嵩梁, 호는 蓮花博士 또는 石溪老漁라고 한다. 內閣中書를 지냈다. 서실 이름은 香蘇山館이며 저서로는 『香蘇山館集』이 있음. 秋史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고 주로 인편을 통하여였고 秋史의 아우인 金明희와의 교류가 있었음.

鐵篋鶴前身.	쇠피리 소리에 학이 본 모습으로 돌아왔네.
知有天涯夢.	하늘가의 꿈 있음을 아니.
東峯一角巾.	동녘 봉에 하나의 각건이로세.

추사는 작품에서 오난설을 ‘梅大隱’ 즉, 매화를 잘 그리는 高士로 표현하였다. 그의 매화 그림은 떠나간 학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한다.

이상의 작품에서는 청대의 인물을 위주로 追崇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시대에 대한 추사의 嗜好를 살펴보자.

「土說爲詩二十年忽欲學元人詩蓋其意元人多學唐故也余遂書辨詩一篇以明詩道之作」

唐宋皆偉人,	당송은 다 훌륭한 인물들로서,
各成一代詩.	각기 한 시대 시를 이루었네.
變出不得已.	변화는 마지 못해 나오는 건데,
運會實迫之.	운수와 기회는 실제 그렇게 만들었느니.
格調苟沿襲,	격조야 답습한다 이를지라도,
焉用雷同詞.	어찌 똑같이 따라 짓겠는가.
宋人生唐後,	송인이 당인 뒤에 생겨났으니,
開闢眞難爲.	개벽이란 참으로 하기 어렵네.
一代只數人,	한 시대를 통틀어도 다만 두어 명,
餘子故多疵.	나머지는 한결같이 하자가 많네.
敦厚旨則同,	돈후의 본 의지도 같으려니와,
忠孝無改移.	충효도 고쳐짐이 없길 앓은가.
元明不能變,	원명이 선뜻 변하지 못한 것은,
非僅氣力衰.	기력이 시들어서 만이 아니라.
能事有止境,	능한 일도 그치는 지경이 있고,
.....	
欲代郊廟犧,	교묘제의 희생을 대신하고자,
使爲蘇黃僕.	가사 일러 소동파와 황산곡의 종이 된대도.
終日當鞭笞,	온 종일 채찍매만 맞는 것밖에,
七子推王李.	칠자로서 왕사정과 이반룡을 추대하여도.
不免貽笑嗤,	비웃음 끼치는 걸 못 면할텐데,

沉設土木形.	더구나 토목의 형상 만들어.
浪擬神仙姿.	헛되이 신선 모습 비긴단 말가.
李杜若生晚.	이백 두보 만약에 늦게 났다면.
亦自易矩規.	그도 또한 구구를 바꿨을 걸세.
寄言善學者.	선학하는 자들에게 말 부치노니.
唐宋皆吾師.	당송이 죄다 나의 스승이라네.

본 작품에서는 특징인 보다는 唐宋의 인물을 자기의 스승으로 보고 존경함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인물이 敦厚의 의지가 같고 忠孝도 변하지 않으니 자신은 이를 본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元, 明代에도 이를 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못한 것은 할 수 있는 일도 그만두려는 지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인물로 李白, 杜甫 그리고 소식과 황정견을 훌륭한 사람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후세인들이 잘못하여 明의 七子와 같은 위상으로 王士禎과 李攀龍을 추대하였지만 이는 비웃음을 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면서 秋史의 생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³²⁾

이상에서 추사는 追崇하는 인물로 인품과 書畫에서 조예가 깊은 이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칭송하는 감정을 작품을 통하여 표현했음을 알게 되었다.

4. 그리움의 노래

본 장에서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앞서의 追崇의 인물과 중복되지만 추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단초를 준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추사는 그의 생애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늘 그리움의 대상인 된 淸代

32) 王士禎과 李攀龍을 당송의 인물보다 하위에 둔 것은 스승인 翁方綱의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명의 칠자처럼 왕사정과 이반룡을 낮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翁方綱은 왕사정의 神韻에 대해 『復初齋詩集』권8에서 ‘空音, 鏡象’ 즉, 공중에 메아리치는 소리와 거울 속에 어리는 형상으로 시가 실체는 없어지고 허상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李宣侁, 「秋史사상과 翁方綱사상」 『秋史研究』6號, 秋史研究會, 2008, 154-155쪽.

의 인물들을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秋史 金正喜의 翁方綱에 대한 그리움이다.

「仿懷人詩體 歷敘舊聞 轉寄和舫 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제 10수

人見和泉字,	사람들이 왜인의 천자를 보고,
賴以金索傳.	그것을 금색에다 전하였다네.
蘇米齋中老,	소 미재라 그 안의 한 늙은이는,
斤斤說齋然.	자세히 주연을 말해주었네.
海天理舊夢,	바다하늘 옛 꿈을 거듭 찾으니,
廻首三十年.	고개를 돌려보매 어언 삼십 년.

秋史가 삼십여 년 전에 翁方綱을 만나 일본의 승려인 주연의 글씨를 묻곤 하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 작품에 표현된 三十年은 추사 자신도 정치적 부침의 시기를 나타낸다. 그런 굴곡의 이유로 스승인 翁方綱이 더욱 더 그리웠을 것이다. 아울러 스승을 평생 그리워하는 秋史의 마음을 알 수 있다.

翁方綱에 대한 秋史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다른 작품을 보자.

「覃溪書藏之北移 扁其齋日寶覃 仍次覃溪寶蘇齋韻」

寶覃何如稱寶蘇	보담은 어떠한가 보소라 일컬음과 같고.
嗜棗與芟同饑夫	조지를 즐기기는 탐식(貪食)자와 마찬가지로이네.
.....	
我欲祭覃能無似	담계를 제하러는 나 역시 같잖은가.
流派海外思沾濡	해외의 유파라서 그 훈김 젖고 싶어
.....	
晝思耿耿夜仍夢	낮에는 생각하여 밤에는 꿈이 되니.
想入鬚眉幾作圖	수염 눈썹 상상하며 몇 번이나 그려봤노.
凡係公蹟輒收拾	공에게 관계된 건 빠짐없이 수습하여
並珍周盤兼商盂	주반이랑 상우를 아울러 간직하네.
.....	

스승인 翁方綱의 책을 북쪽 방에 있는 자신의 서재에 넣고 스승의 서실과 유사한 이름을 붙인다. 구절의 寶覃은 金正喜를 말하고, 寶蘇는 翁方綱을 말한다. 이런 그리움은 이국에 떨어져서 스승의 제사를 걱정하고 아울러 잊지 않으려 초상을 그리면서 낮에 생각하고 밤에 꿈에 드니 수염과 눈썹을 생각하여 몇 차례 그려 본다는 것이다. 결국 스승에 관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추사는 「我入京與諸公相 交未曾以詩訂契 臨歸不禁悵觸 漫筆口號」의 작품에서 소중했던 연경에서의 두 달을 마치면서 그가 만났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제명에서 보여주듯이 燕京에서의 여러 문인들과의 교유 후에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지은 것이다. 작품 속에는 교유한 문인들에 대한 秋史의 情이 나타나 있다. 작품의 서두는 비천한 九夷인 朝鮮에 태어나 대국인 中國의 문인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다소 사대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는 秋史가 만난 여러 스승과 선배 문인에 대한 존경의 뜻이 담긴 겸손의 표현으로 보인다. 작품은 朝鮮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섭섭함의 표현에서 시작하고 아울러 燕京에 머물면서 만난 문인에 대한 秋史의 그리움의 표현이다.

먼저 秋史는 스승인 翁方綱과 阮元을 거쳐 앞의 두 스승을 연결해준 李心菴을 언급하고 野雲 朱鶴年, 三山 劉喜海, 夢竹 徐星伯, 玉水 曹江, 介亭 洪占鎰을 한명씩 열거하고 있다.

먼저 阮元에 대한 표현을 보자.

.....

芸臺宛是畫中觀,
經籍之海金石府.
土華不蝕貞觀銅,
腰間小碑千年古.

운대는 완연하다 그림 속에 보던 얼굴,
경적의 바다라면 금석의 부고로세.
토화도 정관 시대 구리를 못 삭히니,
허리에 찬 작은 비는 천년이 예롭구나.

.....

위의 구절에서 芸臺의 小照를 간직하고 그리워하면서 실제로 만난 스승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표현했다. 다음으로는 이심암에 의해 翁方綱과 阮元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술회하고 있다.

.....

化度始自躑躅齋，
攀草緣阮並作梯。
君是碧海掣鯨手，
我有靈心通點犀。

처음에 진돈재의 소개로 인연하여,
담계도 뚝고 阮元도 만나게 되었네.
그대 바로 큰바다에서 고래 끄는 솜씨라면,
나는 물소를 잡는 신령한 마음이 움직이네.

.....

작품의 躑躅齋는 이심암을 말한다. 그에 의해 추사는 두 스승과 마음이 통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앞서의 언급에서 살펴보았던 朱野雲의 그림에 대한 평이다. 그의 그림의 훌륭함이 中國을 넘어서 朝鮮에서 알려져 있고 그런 대가의 작품을 본인이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野雲墨妙天下聞，句竹圖曾海外見. 주야운의 그림의 기묘함은 천하에 이름 높아, 구죽도는 일찍이 해외에서 보았네). 이외에 古錢의 수집가인 옹씨 형제들(翁家兄弟聯雙璧，一生難遣愛錢癖. 옹씨집 형제 쌍벽이 어울리니, 일생에 고전벽을 버리기 어렵구나.)과 魏나라때의 徐邈과 같이 뛰어난 성품의 서성백, 시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조강등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압록강 물이 잔 가운데서 다 말라가는 것과 같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黯然銷魂別而已，鴨綠江水杯巾渴. 가물가물 혼 녹이긴 이별일 따름이라, 압록강 물 술을 빚어 술잔으로 말려보세.)

이런 그리움은 서로가 평생을 기억하기를 맹세하는 관계로 발전한다.³³⁾ 그런 인물들로 추사는 朱野雲과 翁星原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먼저, 朱野雲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을 보자.

「朱野雲約於六月初三 瀝酒作余生朝 當此日 不禁黯然 率成一詩」

33) 이후의 연행하는 사신을 통하여 추사의 그리움이 전해지고 연경의 문인들과의 교류의 폭은 더욱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

天涯涕淚畫圖新,	하늘가의 한줌 눈물 그림 폭이 새로운데,
六月初三倍槍神.	오늘은 유월 삼일 슬픈 생각 배나 더하네.
政憶擬陶詩屋裏,	멀리서 생각하면 의도의 서재에선,
遙飛一盞作生辰.	한 잔 술 멀리 날려 생일 빌어 주겠지.

하늘가에 있는 한 줌의 눈물이 그림을 새롭게 하고 秋史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저 멀리 朱鶴年의 書屋인 擬陶에서 있을 일을 생각해 본다. 자신의 생일의 그리움이 더해서 자신의 생일을 빌어 줄 朱野雲을 생각하면서 더욱 더 간절히 보고 싶음을 보여준다.

「題翁星原小影」

.....	
生辰又特別	낳은 때조차 또 특별하다오.
以君家墨緣	그대의 집 묵연으로 헤아리면,
宜君生臘雪	그대는 설달생이 마땅하거니,
如何我生日	하필이면 이 내 몸 낳은 날마저.
而復在六月	또 다시 유월달이 된단 말인가.
依然蘇與黃	蘇東坡와 황산곡이 아득하게도.
君我各分一	그대와 내 하나씩 각기 나눴네.
飄輪轉大世	바람바퀴 한세상에 돌고 또 도니
前夢吾夙因	예전 꿈은 나에게 숙세의 인연.
笠屐存息壤	입국은 저 식양에 남아있거니.
.....	

翁星原과 자신을 蘇東坡와 황산곡으로 비유하면서 인연이 끝까지 가기를 빌고 있다.

이상은 추사의 작품으로 그리움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추사의 이런 노력은 그 자신만의 추종이 아니고 동일하게 청대의 문인들에 의해서도 김정희에 대한 언급을 알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자.³⁴⁾

34) 본 고에 표현된 詩歌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청대 문인들에 의해 추사는 존경과 그리움

먼저 옹방강의 추사에 대한 칭송을 보자. 『復初齋詩集』 권68에 있는 「秦嶧山碑舊本」의 끝 구절에서 秋史의 재능을 칭송하고 있다.

海東金君絨致.	해동에 김군이 편지를 보내 왔으니,
墨暈玉筋中鋒圓.	글씨는 옥같은 힘줄의 중봉이 원만하네.
置諸嶧陰堂本上.	역음당본 위에 두니,
已壓甲秀匡廬編.	이미 갑수광려편을 압도해 버렸네.

翁方綱은 秋史를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자신을 그리워하는 제자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으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래 작품은 담계가 朱野雲이 그린 「秋山小幀」에 제한 시이다.

野雲寫秋山小幀寄贈金秋史進士
(野雲이 「추산소정」을 그려 김추사에게 보내다.)

遙青濕翠澹重林,	멀리 푸른 빛 어린 담백한 숲의 모습은,
不寫山居幾曲深.	굽이굽이 산마을을 그린 것이 아니다.
一般橫雲來隔岸,	가로지른 구름이 언덕을 가로막고,
有人相對話秋心.	누군가 마주하여 가을을 이야기한다.

한편 翁樹昆 가경 17년 1월 秋史가 보내준 「日本夾花扇賦」에 감사하며 답례로 「紅豆山莊」이라고 쓴 편액과 다음과 같은 시를 보내주었다.

「秋史庚兄惠寄日本夾花扇賦此寄謝」

花花葉葉爲誰開,	꽃과 잎은 누굴 위하여 피었나,
緘渡重洋大海來.	겹겹의 큰 바다를 건너서 왔네.
玉楮夾層成摺扇,	옥빛종이 겹겹이 접어 접는 부채 만들었고,
金泥小字親香苔.	금니로 쓴 작은 글씨는 향기로운 이끼와 가깝네.

의 대상이 되고 있다.

松附句遜穿藤巧, 송부글귀는 등나무 뚫은 기교보다 손색이 있
고,
月露光非取樣裁 달의 광채는 그 모양만 재단한 것이 아니다.
.....
星原弟 翁樹昆 未定稿 아우 성원 응수곤 미정고.

오난설은 秋史가 燕京에 들어 왔을 때 만나지 못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도광 4년(1824) 秋史의 아우인 산천 명희에게 보낸 서찰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哲兄秋史 神交久矣 每以未及同侍蘇齋杖履爲恨 (철형 秋史와는 신교를 맺은 것이 오래되었으나 매번 소재를 함께 모시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상의 그리움의 대상은 학문적인 교유관계를 떠나서 추사가 일생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이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생을 그리워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이를 기회로 자신의 학예 발전에 노력을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만나고 싶은 추사의 마음을 작품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김정희 시 작품 속에 나타난 청대 문인과의 교유와 그 인물들에 대한 追崇과 그리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추사에게 두 달간의 연경에서의 체류는 선진 학예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용적인 학문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추사 이후의 문인들이 청조의 문사들과의 교유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연경에서 맺은 인연은 추사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고증학과 금석학에서 서신을 통한 질의와 응답으로 그

의 학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옹방강과 阮元과의 사제의 연은 추사에게는 금석학과 경학등의 큰 학술적인 바탕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서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그의 詩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추사가 문학 창작 면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시 작품은 연경에서 만났던 인물로 한정하여 追崇하는 인물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작품에 나타난 追崇하는 인물로 인품, 서체 그리고 그림에서 뛰어난 인물임을 알게 되었고, 주로 두 스승인 옹방강과 阮元을 중심으로 詩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서체에서는 조강, 옹수곤 그림에서는 주학년, 오난설, 이임송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들로부터 學藝에 관한 많은 영향을 받고 이후의 추사의 학문과 예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고 단순히 영향을 받은 측면이기 보다는 상호간에 협력이 되는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런 관계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발전이 되어 일생을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적과 진귀품을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작품을 추사의 연경의 연행에서 가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에 대한 작품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추사는 두 스승인 옹방강과 완원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겼다. 특히, 옹방강은 소동파와 비교를 할 정도로 존경한 인물이었다.

둘째, 서체의 부분에서는 옹성원과 조강을 들고 있다. 작품에 언급되었듯이 그들의 서체는 힘있고 시원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이들의 서체는 추사가 연경이후 자신만의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추사는 그림을 잘 그린 인물에게서 그림 이상의 것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즉, 추사는 그림에서 情이나 詩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작품과 그런 능력을 가진 작가를 추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사는 두 달간의 연행으로 평생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교유한 자신의 감격한 감정을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參考文獻

- 藤塚鄰著, 藤塚明編,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國書刊行會, 昭和50年.
- 金海宗, 「清代學術과 阮堂」, 大同文化研究會, 1963.
- 韓喆熙, 「阮堂金正喜藝術考」,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69.
- 서경요, 「秋史金正喜」, 『한국인물유학사』,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편), 한길사, 1978.
- 李佑成, 「金秋史와 中人層의 性靈論」, 韓國漢文學研究5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82.
- 耘虛龍夏著, 『佛教辭典』, 東國譯經院, 1987.
- 金惠淑, 「秋史金正喜의 詩文學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9.
- 『阮堂全集』, 民族文化推進黨編, 1996年.
- 『阮堂先生全集』, 民族文化推進黨編, 圖書出版社, 1998.
- 俞弘濬, 『朝鮮時代 書論 研究』, 학고재, 1998.
- 신창호, 『유학자秋史 실학교육을 탐구하다』, 서현사, 2002.
- 俞弘濬, 『阮堂評傳』 I, 학고재, 2002.
- 김일환, 「조선후기 중국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2005.
- 김태준, 이승수, 김일환 공저, 『조선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2005.
- 方賓觀等編纂, 『中國人名大辭典』, 商務印書館, 2006.
- 李宜洵, 「秋史사상과 翁方綱사상」 『秋史研究』6號, 秋史研究會, 2008.
- 藤塚鄰著, 藤塚明編, 尹哲圭, 李忠九, 金奎璇 譯,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果川文化院, 2009.

<Abstract>

A study in the interchange of scholars of Qing dynasty
expressed in Kim Jeonghee's poems

Jeon Youngsil

There have been many times exchange about scholarship during Joseon dynasty (朝鮮) between Korea and China. Many Korean people had to go the China due to worship the powerful for China. We know that Kim Jeonghee (金正喜) was the greatest calligrapher in Joseon dynasty. It is certain that Chusa(秋史) which was Kim Jeonghee's pen name was a calligrapher, but he had a great talent about writing poetry, a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and study in ancient monumental in scriptures. I became to know that Chusa was a cultural ambassador during staying in Yanjing(燕京) which is Beijing(北京) now. He represented his mind through his poems. Expecially, he expected the men who had a great talent for example, good character, calligraphy and painting. There are two points in this report. First, Kim Jeonghee respected Weng Fanggang (翁方綱) during his life. Weng Fanggang was the famous for writer, calligrapher, epigrapher and bibliographical scholar in Qing dynasty(清朝). Wan Wen(阮元) was the scholar of the scriptures. As soon as Chusa met them, he regraded them as his teacher. Second, Chusa thought that the good calligrapher must have a strong and beautiful calligraphy like Weng Xing yuan(翁星原), Chao Jiang(曹江). also he liked painters who reminded us of human nature through their painting. I know that Kim Jeong was the great scholar through his poems.

Key Words : 秋史, a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calligraphy, WengFanggang (翁方綱), cultural exchange

투 고 일 : 2010. 1. 10. / 심 사 일 : 2010. 1. 15. ~ 2010. 2. 10. / 게재확정일 : 2010. 2. 15.